

『아비와 딸, 아메리카 대륙종단-북중미편』을 읽고-



중학생과 초등학교 자매를 키우는 엄마이자,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교사, 그리고 퇴근 후에는 대학원까지 다니는 저의 나날은 정말이지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눈코 뜰새 없는 바쁜 시간들 속에서, 글 속에 파묻혀 잠시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면 그저 재미로 읽는 가볍고 쉬운 글들을 줄줄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경환 교수님께서 내주신 『아비와 딸, 아메리카 대륙종단』 독후감 과제는, 깊이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꽤 두툽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런 책 한 권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평일도 주말도 그럴 틈이 없다는 현실에 시계의 째깍거림마저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무렵, 가벼운 감기인 줄로만 알았던 증상들이 폐렴과 늑막염이라는 예상치 못한 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 급히 써준 진료의뢰서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전 처음 겪는 병과 난생 처음 가야 할 큰 병원 예약에 설움과 불안감이 뒤섞여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세종병원에 월요일 아침 일찍 직장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초진을 보러 갔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해야 했는데, 예약이 밀려 3시간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방 속에 잠자고 있던 『아비와 딸, 아메리카 대륙종단-북중미편』 책이 마치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병원과 멀다는 것이 내 자랑 중 하나였는데,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스스로 웃어넘기며, 난생 처음 CT 검사 앞둔 아픈 몸과 걱정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저는 마침내 이 책을 펼쳤습니다.

바쁜 와중에 질병으로 인한 현실의 '멈춤'이란 시간 속에, 저는 임경환 교수님 부녀가 시작한 '새로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열고 머리말을 읽으며 "뚜렷한 목적도 꼭 무얼 하겠다는 욕심도 없다. (중략) 가장 뚜렷한 무엇이 있었다면 그건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소개받았을 때, '아비와 딸'이라는 제목처럼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까? 식물분류학 강의 과제이니 식물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삶의 방향처럼, 이 책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통해 저는 병원 카페 의자에 앉아 미국 시애틀과 알래스카를 지나 캐나다, 미국 본토,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지역으로 저의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세 여인과 시작했던 여행이 이윽고 딸과 친구 아들(은규)과의 여정이 되고, 때로는 혼자 하는 여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교수님보다 어린 알래스카의 현인이나 숙소 주인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때론 그들의 지혜에 감탄하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분석하려는 저의 태도를 반성하며 다시 흘러가듯 책을 읽습니다. 실제로는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기에, 저는 그저 교수님의 글로 전달되는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다 문득, 스쳐 지나가듯 읽었던 도시와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글들이 마음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은 여유로운 대자연 앞에서는 더없이 너그러웠지만,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 앞에서는 냉정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지닌 명소나 화려함에 대한 감상은 의외로 시큰둥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 당시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묘사 또한 도시를 바라보는 묘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함께 할수록, 글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교수님의 순수한 감동과 경외감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없이 펼쳐진 자연의 광활함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작은 존재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신비는 벅찬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원시림에 들어서는 글들을 읽을 때면, 저 또한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교수님의 여정을 초조하게 뒤쫓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위험해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잡한 도시의 익숙함이 편하고, 자연의 위대함보다는 그저 안온한 일상을 택하고 싶은, 자연보다는 도시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만나는 복분자 딸기나무, 분홍바늘꽃, 춤추는 사시나무, 억새꽃 등 강의 시간에 듣고 보았던 식물들이 반가워 저절로 작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곧바로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는 습관은, 때로는 여행을 검색해 보는 것보다 먼저 어떤 식물이었지? 하며 손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 속에서만 살아온 저는 자연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속 사람들처럼 산에 들어가 자급자족하고 싶다는 남편의 이야기에 "혼자 들어가 사시던가, 저는 저렇게는 못 살아요. 늙으면 도시랑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했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분류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식물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식물들이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제 인생 처음으로 와닿게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삶-생존을 위한 치열한 서사였으며, 인간의 생을 닮은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러한 식물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다 보니, 아이들도 점차 식물에 대해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목원에 가자고 하면 힘들다며 질색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함께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교수님 부녀처럼 대륙을 종단하기보다 가까운 수목원부터 차근차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라면 외로울 것 같고, 이따금씩 글과 사진 속에서 까불거리는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부러워 저도 가족들과 함께 수목원이나 산책을 하며 소중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딸처럼 개구쟁이처럼 장난도 쳐보고, 때로는 불만을 솔직하게 터뜨리며 역할 분담도 해보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들의 관계가 참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족이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렇게 독립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며 순간순간 흠칫, 멈칫하게 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글쓰기,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보면 어찌지?' 하며 잠시 심박수가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마치 제가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화'라는 포장 속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저에게는, 이러한 교수님의 꾸밈없는 솔직함과 진실성이 더 큰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라는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솔직함과 진정성을 제 삶 속에서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아메리카 대륙종단-북중미편』 책을 통해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며, 가족과 인생이란 무엇인지 잠시나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한낱 인간이 지배하기보다는 이 책과의 여정처럼 흘러가듯 끝까지 완주하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박사과정생이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 엄마가 되었으며, 직장을 통해 교사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긴 과정 속에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해봅니다.